

오바마가 표지에 나왔기에 사서 봤거든. 미셸이 한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.

“소박한 정원이라도 보기 좋아지려면 10년은 걸려요.”

왜일까? 예쁜 정원 만든다고 비싼 나무 가져다 심어도 처음엔 자연스럽지 않아. 이끼도 끼고, 들풀도 나고 시간이 지나야지.

미셸이 한 말을 되뇌면서, 브랜드도 자기다움이 보이려면 꾸준함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. 브랜드는 만드는(making)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쌓아가는(building) 거야.